

# “불교사회복지법 만들자”

권경임 박사 불교사회복지대회서 주장

김수영 교수 “사찰 복지사업 참여 의무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불교복지인 설립을 포함한 ‘불교사회복지법’(가칭) 제정과 함께 교구본사 중심의 복지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세검정 하립각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주최로 열린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한 복지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종단차원에서 사회복지 관련법과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불교사회복지는 일회성 ‘자선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천년 불교사회복지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권경임 박사(재단차원위원)는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종단의 기능과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복지시설의 종단등록 의무화 법안 마련과 종단차원의 복지전담기구 설치,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설립을 통해 불교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조직기반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수영 교수(국립보건원)도

‘지역사회 내에서 사찰의 사회복지 활용 및 실천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종단이 정책적으로 복지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찰도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발표자의 견해를 종합하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현 복지법인을 종단내 독립전담기구인 불교사회복지원으로 전환하고 각 교구본사별로 복지법인을 설립해 단위사찰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는 체계다. 또한 교구본사가 말사들을 관리하는 종적구조와 시·군 단위의 지역별 복지연합체를 구성하거나 장애인·어린이·여성 등 시설 종별 연합체를 구성하는 횡적구조를 조화시킬 경우 현재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두는 종단차원의 ‘사회복지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종현 제2장 제117조와 제118조에는 사회복지원을 두고 각종 기관과 단



○15일 열린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한 교계 복지관계자들은 ‘불교사회복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체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주장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하는 경향이 많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현각스님(조계종 중회의원·사회문화과위원)은 “불교사회복지법은 분명 필요하다. 복지재단에서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법 시안을 마련해 오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중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선 사회복지법안이라도 먼저 제정해 불교복지의 근본틀을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강남사원련 내년초 결성

봉은사·총지사 등 주지 8명 발기인 모임

서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강남구에 지역내 사찰과 신행회, 연구단체, 직장직능단체 등 모든 불교단체들이 총 연합하는 강남불교사원연합회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권한대행 지성경사, 강남포교원장 성열스님 등 강남구에 소재한 사찰 주지 8명은 지난 7일 총지사에서 ‘강남불교사원연합회’ 발기인모임을 갖고 내년 1월 초 창립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이날 강남사원련 결성준비위원회에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부위원장에는 총지종 지성경사를 각각 선임했다.

강남사원련연합회는 앞으로 부처님 오신날 불축법회, 연등축제, 찬불가 경연대회, 다도 등 연합문화행사를 가져 불교를 알리고 불우청소년 결연, 관내 복지시설 후원, 직능단체 후원 등을 통해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간다. 또 사찰이나 불교계와 행정기관과의 민원성 문제가 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하고 불자법

조인의 지원 등을 받아 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불교의 위상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강남사원련연합회는 강남구내 사찰과 연구단체, 직장직능단체, 신행회 등의 가입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02)3452-7485 이경숙 기자

# “일부스님 도덕성 해이 교단 수호차원 대처”

재가연대 20일 기자회견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3일 “최근 일부 스님들의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하여 교단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일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조계종 총무원 고위 소임자 현 모 스님이 지난 98년 상삼도박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백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재보가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기자

#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사찰-단체 플래카드 걸고 교회도 방문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찰과 불교단체가 축하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인근 교회나 성당을 직접 방문하는 등 종교 화합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10년째 인근 포이동성당과 장을 나눈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는 올해도 어김없이 사찰 입구와 사찰과 성당 중간에 있는 놀이터에 ‘아기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난 화분도 보냈다. 화계사(주지 성광)는 한신대 입구와 수유성당 2곳에, 도선사(주지 광복)는 419 사거리와 우이동 8번 종점에 플래카드를 20일을 전후해 걸 예정이다.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이웃 종교와의 정을 나누고 있다. 조계종 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도영)가 19일 통사승을 그려 넣은 플래카드를 금산사 소재지에 건 것을 비롯해 전주 학소암과 금

산사포교당도 전주 시내에 플래카드를 걸었다. 또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도 이번주 중으로 축하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를 사찰 입구에 걸 예정이다.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는 21일 저녁 7시 영남불교대학 법당에서 송년회를 겸한 크리스마스 축하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북 안강 향림사(주지 범명)는 크리스마스 당일 인근 교회와 성당을 방문해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계획이다.

불교단체들도 크리스마스 축하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강원도 소적새마을(원장 현각)은 지난주 사찰 입구에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한다’는 플래카드를 걸었으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위원장 혜조스님은 ‘한국식 크리스마스 트리’를 직접 제작, 한 수녀회에 전달했다. 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향노)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위원장 혜조스님은 나뭇가지에 엮, 꽃감, 대나무 숲, 누룽지, 한지로 짠 옷모양의 종이를 새 단 ‘한국식 크리스마스 트리’를 직접 제작해 ‘원죄 없으신 마리아님을 위한 수녀회’에 전달하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 “이젠 火葬 시대다”

불교·가톨릭·개신교·유교 ‘한목소리’

불교의 전통 장례의식인 화장, 가톨릭, 개신교, 유교 등 주요 종교가 화장을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재단법인 만민회(회주 학성)가 장묘제도 개선 실천을 목적으로 14일 경북 영천 만민사에서 개최한 ‘종교연합 화장장려 세미나’에서 4대 종교 관계자들은 “사회적·생태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화장을 장려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부활을 믿고 매장을 택해온 가톨릭과 개신교도 “다이상 매장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매장을 고집해 온 유교조차도 “어떤

제도든 현실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화장’쪽에 손을 들었다.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주제발표에서 “화장이 불교의 죽음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장려한다는 것은 불교인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단과 사찰에서 화장이 불교전통의 장례문화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선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정 신부(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교황청은 63년 화장이 교회법과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아직도 매장 선호계층이 많은 교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운 목사(기독교장래문화협의회)는 “기독교 장의문화가 전통적 장의문화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지만 화장이든 매장이든 산 자의 공간과 환경을 망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성균관 이승관 전의는 “매장이든 화장이든 장례제도는 개선돼야 하지만 유교의 종교적 의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 ‘지리산 살리기 운동’

녹색연합 10대뉴스

지리산반 건설 백지화운동이 녹색연합 10대 환경뉴스에 선정됐다. 녹색연합은 지난 7일 발표한 10대 환경뉴스에서 우리나라 환경운동에 희망을 주는 사건으로 ‘지리산반 백지화운동 전개’를 비롯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 쟁취’, ‘지리산 반달곰 생존 확인’, ‘팔당 상

수원 초고층 아파트 건축 백지화’ 등을 선정했다.

녹색연합은 이밖에 ‘미군기지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사건’을 첫째 사건으로 꼽았다. 둘째는 ‘준농림지 폐지로 인한 난개발문제 대두’이며, ‘새만금 백지화운동’,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강원도 산불’, ‘환경호르몬 문제 심각’이 뒤를 잇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사형제 폐지 모임’

범종교차원 추진

불교, 개신교 및 가톨릭을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종교 모임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등 3대 교단의 사형제 지운동 관계자 10여명은 지난 10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간

담회를 갖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가칭)을 결성하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과 정의평화위원회 총무원 이창영 신부, 백도웅 KNCC 부총무를 각 종단 대표자로 선임했다.

진관스님은 “앞으로 이 연대모임을 원불교, 천도교 등 다른 종단들도 모두 참여하는 범종교단체로 발전시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성명서

중앙총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번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수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고종은 한국불교 1천 6백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종단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교법안 중에서도 정법을 지키고 법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는데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변화에 따라 전통종단의 정체성과 위상이 변질되어 종도의 구심점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금번 총무원장 선거를 계기로 종단이 구각(舊殼)을 벗고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만큼은 자결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와 종단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이번 총무원장 선거마저 허자가 발생하여 실망스러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총무원장 협의회는 중무일선에서 종단운영을 책임진 종진 스님들이 모인 자생단체로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종단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총정에서 우리의 견해와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봉은사의 청원내용을 보면 종연스님이 종단의 공채주지로서 유사종교 단체에 가입하여 고위간부의 직책을 가지고 전통불교를 비하하는 언행을 하면서 세력확장에 앞장서 불교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더 나아가 5억 상당의 막대한 삼보장제까지 헌납하였다고 하는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관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이처럼 사리분별이 어둡고 자기종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총무원장이 되어 종단을 운영해 갈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모 경찰간부가 이력서 한 줄을 잘못 기재하여 그직을 사임해야하는 냉엄한 사회정서를 감안할 때 종교지도자의 행동과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강조하게 된다. 종단의 질서와 정의실현을 위해서 종연스님은 하루빨리 양심에 따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거취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송중연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기간동안 종도들에게 종단을 선택하고 개혁

하기 위해서는 삼사를 배제하고 새칭칠인방을 청산하여야 하며 용궁사 문제와 보전공제회문제등 종도 들간에 회자 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결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해놓고 막상 당선후의 그의 행적과 언행을 볼 때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모 주간지와외의 인터뷰기사중 “자비문중에 개혁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나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종단화합이 안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사리에 맞지 않는 분별없는 발언으로 종단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가 하면 총무원의 인사처리에 있어서도 구태를 답습, 하나도 예전과 달라진게 없어 송중연 스님은 종단개혁의지와 앞으로 종단중흥을 위한 비전과 철학이 없으며 종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종연스님은 종도 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종단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3. 송중연 스님은 자신이 총무원장이 되면 사찰분담금을 폐지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종단을 운영하고 총무원과 동방대학을 짓겠다고 하는 등 수많은 공약을 남발하였으나 지금 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공약내용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종연스님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공약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예컨대 종연스님의 재산 총액이 얼마인지 또 인제종 종단에 내놓을 것인지 총무원사와 동방대학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혀 종도 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이 구호로만 그친다면 종도를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것으로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총무원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1일 총무원장 후보자의 자결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선거후 발생할지도 모를 후유증을 방지하고자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송중연 스님은 참석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깨고 선거전략이란 이유로 불참하였는바, 당선후의 언행을 미루어 보면 분담금폐지와 사재출연, 총무원사 건립과 동방대학이건 같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위한 수단이며, 자신의 잘못된 정책과 과오(유사종교단체 활동과 삼보장제 헌납등)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토론회에 불참한 것으로 인정한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종단의 총본산 수사찰인 봉은사의 청원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판단되므로 중앙총회의장 스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된 적법성 여부와 송중연스님의 자격자문제를 조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립을 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이제 우리종단은 달라져야 한다. 사람에 따라 편이 갈라지고 정실에 따라 지도자를 선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종단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종단을 위한 길인지 겸허한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어느 특정한 이익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누구라도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바르게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종단의 장래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의지를 성명서로 발표하는 바이다. 종도 여러분의 이해와 동감이 있기를 기대한다.

불기 2544년(2000년) 12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협의회 회장 정대은